

## 여성·문화

## 미혼모·자녀 “사회복지서비스·예산확대해야”

얼마 전 봄철 TV프로개편으로 막을 올린 TV소설 '길'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미혼모의 애기를 다뤄 어린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영화 '네온속으로 노을지다'도 비판을 받았다.

똑같은 일이 미국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92년 말에도 일어났다. 당시 CBS-TV 드라마 '머피 브라운'의 미혼모가 문제가 된 것이다. '혼외정사를 통해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TV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등 대중매체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면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미국가족의 모습이 어떤지 그 실정을 모른다' 실제로 미국가정 25% 정도가 편모가정이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여성계에서는 원론적인 비판이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 다.

문제는 이런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은 거의 캐리어우먼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대부분 '불우한 처지의 젊은 여성들이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사랑해줄 누군가를 갖기 위해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 사회지탄 이용, 복지 뒷전

그나마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 '저소득 미혼모가 매월 1백60달러 정도의 아동부양금과 함께 의료부조 주택부조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모가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는 탁아서비스도 제공된다. 아동부양금금은 보통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5년 3월24일 복지제도개혁법안(HR)이 미하원에서 통과되면서 18세 이하 미혼모에 대한 연방 현금원조가 사라지며,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보조도 줄어들었다. 클린턴 대통령도 '공화당은 다수당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가혹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논평을 했지만, 그 역시 '나태한 십대미혼모들



95.6.6

세간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젊은 이들의 뜨거운 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인회총연맹의 조사결과 미혼모 중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는 25%로(84년 75%) 상당한 의식변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모 평균연령 20세...낙태선택 85%  
바른 성윤리·성교육 확산 필요

을 먹여살릴 이유가 없다며 그들에 대한 식권지급을 무효화시켰다.

이렇듯 수난을 당하고 있는 미혼모들의 평균 연령은 한국의 경우 93년도에 20세로, 90년도의 22세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크며, 15세 이하까지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태어나는 신생아의 28%가 미혼모로부터 태어나는 어린이의 수로, 90년도에 이미 1백16만이 넘었다. 그런데 이중 10대 미혼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가 53만을 넘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17세 이하의 미혼모로 출생한 아이는 19만4천여명이 나 되고 있다.

이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과연 어떤 직장을 잡을 수 있겠으며,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는 뻔하다. 이런 현실과 달리 몇몇 캐리어 독신여성들의 생활을 빗대어 비교한다는 것은 눈먼 장님이라는 지적이다.

## 복지시설 부족, 예산 쥐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80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미혼여성 및 미혼모자 가구의 경제적 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예로 90년 각 시도 부녀상담소

및 전국입양기관의 상담을 토대로 집계한 미혼모발생수는 4천7백6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미혼모의 숙식보호시설은 전국 10개소에서 4백90명을 수용하는 정도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K양은 "현재의 미혼모정책은 거의 해외입양에 의존하는 입양위주의 정책"이라며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기 원할 경우 이를 돕는 사회적 지원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해외입양 중 60%가 미혼모의 자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한림대 허남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혼모가정의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를 위해서 ▲현실적인 양육비지급 ▲모자시설의 확대 ▲주택부조 ▲탁아보호 ▲호적처리의 권리 ▲의료보호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원 없을 땐 낙태 늘듯

미국 등 미혼모에 대한 복지혜택이 일정 수준에 있었던 나라들이 속속 현금지원금지, 삭감 등으로 돌변하면서 내건 이유 중 하나는 "복지혜택이 상당수 여성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도록 부추긴 측면

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밖에서는 복지혜택이 차단되면 낙태가 더 늘어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미혼모 중 85%가 낙태시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91년도 전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자료에 따르면 18~34세의 미혼여성 1천5백14명 중 임신중절시술로 태아를 지우는 경우가 85%나 돼 혼전관계로 인한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잡지사 근무하고 있는 J(25)양은 "빌딩 숲 사이에 많은 산부인과는 바로 직장여성의 낙태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성형수술보다 표정도 안나며, 간단하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개탄해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더라도 학생신분으로 임신을 했을 때는 모두 중절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으로 미혼모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장여성을 포함 대졸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 대부분 학대나 성폭행 경험

인류학자인 다이애너 에드워즈가 지난 2월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들의 71%가 유년기나 10대에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말했다. 이중 계부나 친아버지, 친지들에게 성폭행당한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혼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부인회총연맹의 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의 경우는 55.2%, 미혼부의 경우는 6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 개인에게 지탄할 것이 아니라 십대들을 성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상업광고들에게 그 일차적 책임을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불우하고, 경제적으로 힘없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미혼모들에게 사회복지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 성윤리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 미혼모 도와주는 시설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나 모자가정을 도와주는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 대상 시설은 6개월, 저소득여성대상 시설은 3~12개월로 무료합숙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1통을 떼어 각 구청 부녀상담소나 각 시설로 신청하면 된다.

## 〈부녀직업보도시설〉

- 은성직업기술원(843-3872):저소득층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6~12개월간 합숙을 통해 미용, 피부미용 기술 교육
- 구세군여자관(353-5722):미혼모 대상, 분만후 6개월까지 합숙가능하며 컴퓨터와 기계자수교육
- 애란원(333-4725):미혼모 대상으로 6개월까지 홈패션과 동양자수 교육
- 자매복지회관(655-9237):학대받은 여성, 저소득여성대상으로 6~12개월간 합숙, 기계자수와 컴퓨터교육
- 한국여성의 집(333-7511):저소득여성대상, 6~12개월 합숙, 칠보공예 컴퓨터 교육.

## 〈모자보호시설〉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18세(취학시 20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대상. 서울시에서 1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입소 신청을 하면 된다. 입소하면 주거 무료 제공과 함께 생활비도 지원한다.

서울에는 성심모자원(712-5287, 정원 20세대) 해방모자원(754-5702, 정원 24세대) 영락모자원(914-1940, 정원 32세대) 동광모자원(930-5782, 정원 24세대) 수궁모자원(612-6736, 정원 21세대) 창신모자원(612-7142, 정원 23세대) 평화모자원(689-9602, 정원 20세대) 등 7곳이 있다.